

함께하면 효과는 둘이 아닌 셋이 된다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축제의 상생 연계

2013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문화제』와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축제브랜드 대상을 받은 『장흥 물축제』는 전남이 자랑하는 지역 축제다. 하지만, 장흥 물축제는 7월, 강진 청자문화제는 8~9월에 열려, 인접 지자체간에 한정된 관광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관광객들이 동시에 두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상생의 아이디어로 2011년부터 7월말~8월초 동시 개최함으로써 개최비용도 절감하고 더 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었다.

남도 여행객의

소망

한 모 씨는 남도 여행을 좋아했다. 번잡한 삶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른다는 느낌이 들 때면 배낭을 싸서 훌쩍 떠나곤 했다. 행선지는 항상 남도였다. 그곳을 다녀오면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새로운 힘을 얻었다.

세상의 욕심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듯 때 묻지 않고 평화로운 풍

경은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완만한 산 사이로 시원스레 펼쳐진 들판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색을 바꾸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 깊은 사색과 여유를 주었고 짙은 쪽빛이 가슴까지 후련하게 한다.

남도에서는 어디를 가든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청렴한 선비의 귀양지나 옛 시인의 생가가 정겨운 초가와 기와집으로 남아 있다. 한 씨는 남도야말로 그 전체가 큰 공원이며 박물관이고 미술관이라 생각했다.

언제든 구수한 사투리의 인심 좋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는 곳, 기막히게 맛있을 뿐 아니라 푸짐하기까지 한 식탁이 있는 곳. 젊은 여행자의 고민과 꿈이 묻혀 있는 추억의 땅 남도, 한 씨의 청춘은 남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씨는 바쁜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까지 챙기느라 남도 여



전남의 장흥 물축제

행의 설렘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도로 떠날 기회를 얻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여름방학과 자신과 아내의 휴가를 맞추어 남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행선지는 물 축제가 열리는 장흥이었다. 근처의 다른 지역도 방문하기로 했다. 장흥에 도착한 한 씨는 탐진강과 인근 숲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 모처럼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 물놀이를 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각종 체험 행사에도 참석했다.

장흥은 그 자체로 가족이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쌓기에 훌륭한 곳이지만 때마침 축제가 열려 그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볼거리도 많고 할 것도 풍성했다.

한 씨는 내친김에 옆에 있는 강진을 들르기로 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돌아보고 다산유물관과 무위사를 거쳐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한 씨 가족들이 강진 읍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당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강진 참 좋죠? 일주일 있다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아니 왜요?” 한 씨는 무슨 뜻인지 몰라 물었다.

“8월 7일부터 청자축제가 열리잖아요. 강진 청자가 유명하거든요. 구경거리도 많고 청자도 싸게 사고, 애한테는 공부도 되고…….”

한 씨는 오는 길에 보았던 현수막과 포스터를 떠올렸다.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곧 휴가가 끝난다. 휴가가 길더라도 이 먼 거리를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씨는 장흥과 강진 두 지역 축제가 같은 기간에 열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관광객이 분산되어 손님을 뺏기는 셈이 될까?’ 다른 쪽으로도 고려해보았다. 그렇지만 어렵게 방문한 자신의 가족 같은 사람은 같은 시기에 두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았다.

2010년 7월 말 장흥과 강진을 여행했던 한 씨의 이야기이다.

한 씨와 가족은 2011년 여름에도 장흥과 강진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씨가 작년에 바라던 대로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두 지역이 합의하여 같은 기간에 축제를 열고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장흥은 산과 바다, 강과 계곡 등 자연자원을 골고루 갖춘 고장이다. 그중 장흥 읍내를 관통해 흐르는 탐진강에서는 매년 즐거운 축제가 펼쳐진다. 바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서는 물을 테마로 하는 아쿠아 페스티벌답게 물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 · 수상자전거 · 오리보트 · 우든보트 · 카누 · 뗏목 · 레볼루션 · 워터슬라이드 · 워터볼 등의 수상 레저, 장어 · 메기 · 잉어 · 붕어 등의 다양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 천연약초를 이용한 힐링 풀장 등은 축제에 즐기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다.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밴드 경연대회, 록 페스티벌 등의 공연도 축제의 흥취를 더하며 탐진강의 밤을 빛내준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축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진 청자문화제

강진 청자문화제는 1996년에 시작된 유서 깊은 지역 축제이다. 강진은 청자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보급 청자의 80퍼센트 이상이 강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강진 청자문화제에서는 이런 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다.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체험을 즐거움을 느끼는 프로그램도 있다. 전통 물레로 직접 성형함으로써 옛 도공들의 장인 정신을 엿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방학 과제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자 도판 찍기와 청자 파편 모자이크, 청자 코일링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축제의 현장을 강진만 전역으로 넓혀 바지락 캐기, 바다낚시, 통발 어업 등 어촌 체험 마을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이색



강진 청자문화제

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LED와 조형물, 청자등, 꽃밭은 관광객들에게 더없이 좋은 볼거리가 된다.

축제기간 동안 청자박물관과 지역의 개인 도자기 업체가 실시하는 청자 할인 판매와 경매를 이용하면 훌륭한 청자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강진 청자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문화제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다. 각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흥미로운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체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웃한 이 두 지역의 축제는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고 일정도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개별적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축제는 다른 지역 사람을 초청해 여는 그 지역만의 잔치이며 일종의 문화·관광 상품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은 한정되어 있다. 관광객을 두고 지역 축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보전·계승하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대부분이 축제를 통해 지역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축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관광 산업은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유인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축제 준비와 개최를 계기로 주민 간 소통이 늘어나며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산물, 자연환경 등에 포함된 관광자원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축제가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자기 지역 축제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성황리에 열리기를 바란다. 독자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문화제 역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흥 물축제는 주로 한여름인 7월 말에 열렸고 강진 청자문화제는 무더위를 넘긴 8월이나 9월에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두 축제의 개최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등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두 축제를 모두 맛보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한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축제를 즐긴다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협력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경쟁을 협력으로 바꿈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곧 현실이 되었다. 2010년 12월 24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축제 상생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다. 먼저 개최 시기를 같이 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된다. 하루 이틀 차이는 있다. 장흥 물축제는 7일간, 강진 청자축제는 9일간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두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축제의 홍보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축제 예산을 절감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야간 공연을 할 때는 일자별로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개막식 행사 때는 두 축제의 협약 내용을 소개하고

실천 내용을 섯포한다. 서로 축하 사절을 보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기도 한다.

상생 아이디어가 낳은 성과

두 지역 축제의 동시 개최와 상호 협력은 “물과 불의 상생”으로 표현되었다. 장흥 물축제는 ‘물’을 강진 청자축제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불’을 상징한다. 축제를 찾은 사람은 ‘물’과 ‘불’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이후 동시에 축제가 열리고 두 축제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의 즐거움이 다채로워지고 편의성도 높아졌다. 축제에



장흥 물축제를 즐기는 아이

상생의 길

서로 먹어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참여하는 사람 수도 이전보다 훨씬 늘고 있다. 또한, 상생의 스토리와 이질적 차원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하는 독특함은 두 축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인터넷에는 두 축제를 모두 다녀온 사람들의 행복한 경험을 담은 여행 후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 독특한 이벤트는 일본에도 알려졌고 일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백 명 규모의 일본 관광객들이 이 축제 기간에 장흥과 강진을 찾고 있다. 특히 큐슈 지역에서는 동시에 열리는 두 축제를 즐기는 것이 정기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장흥과 강진은 매년 큐슈에서 온 일본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즐거운 경험을 안고 돌아간다.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 이들이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일본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두 지역의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서로 연계시키고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자는 상생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성과를 내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며 내실 있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이라는 배타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우호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 간 상생의 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축제와 함께 윈-윈하는 새로운 지역 축제 운영 모델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듯 아이디어의 힘은 막강하다. 특히 상생과 협력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는 가치와 의미를 담은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